

목포시 관광객 1000만 시대 기반 닦는다

목포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중 관광명가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목포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 '봄 나들이 전략'이 요구된다. 올 한해 펼칠 목포시의 주요 관광 사업을 살펴봤다.

◇'맛의 도시' 브랜드화= 목포의 맛 자원을 활용한 음식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다.

'오피스 맛집'이 선봉장이다. 오피스 맛집은 지난해 100선(최종 97개)을 선정했는데 이어 올해 31곳을 추가해 현재 128곳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목포시는 주기적인 미스터리 쇼퍼(암행 점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맛의 도시 목표 정착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도 편다. 2021년과 2022년 국제슬로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위해서다. 특히 요리 체험과 관광지를 연계한 음식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또 외식업소 역량 강화 컨설팅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참여업체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도 이어가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 선정...기본계획 수립·인프라 체계적 정비 맛의 도시 브랜드화·스카이워크 조성·미디어마케팅 박차



관광거점도시 목포시가 신중 관광명가로 떠오르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 북항 회타운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다.

◇목포 브랜드파워 강화= 지난해 미디어 마케팅팀을 신설해 예능 68개·드라마 8개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현안 사업들과 축제, 대규모 행사에 맞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한국PD연합회·전남영상위원회·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 네트워크를 통한 팸투어에 박차를 가한다. 또 바나나 목포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목포마케팅도 병행한다. 젊은 층을 겨냥한 낭만항구 목포 웹드

라마도 제작한다. 시나리오 공모를 거쳐 5월까지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목포 스카이워크 포토 존 조성=유달 유원지에 들어서는 스카이워크 길이는 54m, 너비는 3-6m다. 사업비는 총 1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1월 착공, 구조물 제작이 한창이다. 3월까지 이 구조물의 조립을 완료하고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오는 5월 개통할 예정이다. 고하도 승강장 주차장 인근에 생태공원

을 조성한다. 5800㎡ 규모에 총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생태체험공원, 분수, 쉼터, 부대시설을 갖춘다. 현재 실시계획 중이며,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보상비 8억원을 확보해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상품 운영 및 관광안내 서비스=올해는 시화마을, 보리마당, 근대역사거리 일원 등 시내 탐방프로그램을 월 4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목포·무안·신안 서남권 3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체 및 개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여행 장려금을 지원한다.

특히 관광약자를 배려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이용한 1대 1 맞춤형 돌봄 여행서비스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올해 관광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광 환경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오는 2024년까지 15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레트로 퓨처·로맨틱 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프로축구 K3리그에 소속된 목포시청 축구팀이 독립 법인화(클럽화) 한 뒤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운영된다.

프로축구 K3 목포시청 축구팀 독립 법인화

조례 개정 등 6월까지 절차 마무리...9월부터 목포축구센터 위탁

프로축구 'K3 리그'에 소속된 목포시청 축구팀의 독립 법인화가 추진된다.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K3-K4리그 필수 기준으로 '클럽법인화 전환 및 사무국 설치'와 '유소년팀 운영'을 의무 규정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다음 달까지 독립법인 형태의 축구클럽 전환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목포시는 우선 '목포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법인의 설립 부분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제4조 사업 부분에 시청축구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클럽사무국 설치와 사무국 직원 6~10명(권장사항) 운영과 관련, 별도 사무국 설립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포 축구센터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직원도

축구센터 직원 4명을 활용하면서 신규로 직원 2명만 충원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 판단이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다.

목포시는 오는 2022년까지 12세 이하 유소년팀을 축구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축구반 교실 운영 예산 3300만 원을 확보했다.

현재 목포시청 축구팀은 선수 26명에 감독·코치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예산은 연간 42억원 규모다. 유소년팀 운영비는 연간 4억~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목포시 교육체육과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유예기간이 9월까지여서 오는 6월까지 조례 개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9월부터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3리그에는 목포시청 등 모두 16개 팀이 소속돼 3월부터 홈·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그림으로 풀어낸 못다한 이야기...서산동 보리마당 할머니들의 이색 전시회

35명 3개월간 준비 36점 전시

"우리 영감이 옛날에 선장을 해서 돈 많이 벌었어. 집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똑딱 만들어주고 해서 편하게 살았어. (종략) 시방도 막둥이아들하고 사는데, 근디 아들이 혼자 사니까 좋은 색이 있나 좀 알아보소." (황성섭 할머니)

"영감하고 딸 하나밖에 안 났어. 연탄 나르는 일을 했지. 지금은 길도 좋아졌는데, 그때는 길도 웅삭해서 힘들었어. 지금은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떨려. 내 나이 시도 못할 정도로 많제. 영감은 진즉에 가불었어." (양지심 할머니)

바닷가 산동네에서 갓내와 함께 살아 온 65세 이상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낸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전시는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 시화골목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산동네 사람들 이야기'에 물들이다'로, 할머니 35명이 3개월 동안 준비해 모두 36점을 전시했다.



할머니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못다한 이야기나 마음 속에 간직해 온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을 얹고 설진 실타래를 풀듯 그림으로 풀어냈다. 맞춤법이 틀려도 좋고, 수준 있는 그림도 아니지만 어머니 혹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가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을 65세 이상 할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그림과 이야기로 녹여낸 작품을 시화골목에 선보이는 이색전시회가 21일부터 열리고 있다. 왼쪽은 할머니들이 전시한 그림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슴 몽글한 사연이 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시회를 기획한 김해경(기린의 숲 책방지기) 씨는 "동네(보리마당 시화골목)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어 맘이 아팠다. 골목 간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고 이 마을에 사는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

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번 전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모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며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적지 않아 그림책을 활용한 문해(글을 깨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농협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목포농업협동조합이 농협중앙회 '2019년도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가장 권위있는 것으로,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신용사업·교육지원사업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목포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삶의 증진을 통한 소득증대,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농·축협 건전 경영을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 실적, 경영 관리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이번 성과는 목포농협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내실있는 경영 관리와 조합원·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농협 본연의 자세를 성실히 지켰기 때문"이라며 "조합원과 목포농협의 동반성장을 위해 석현동 신성장복합 단지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